

# 중학교 도덕 수업 준비를 위한 제안

고 문 심\*

## 목 차

- I. 시작하면서
- II. 도덕과 수업의 특징
- III. 도덕교과서에서의 좋은 수업
- IV. 함께 하는 도덕 수업 하나-사진으로 이야기 꾸미기
- V. 예비교사로서의 준비
- VI. 마치면서

## I. 시작하면서

첫 학교, 설렘과 함께 부푼 꿈을 갖고 있었다. 대학에서 더 어려운 것도 공부했는데, 설마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정도야 못하랴 싶었다. 하지만 첫 수업을 하고 나서 넘어야 할 벽들이 많음을 느꼈다. 새로운 선생님이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기 것에만 열중인 아이, 옆드려 자는 시늉을 하는 아이... '도덕 정도야 누구나 뻔히 아는 이야기'라고 여기는지 수업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 태반이었다. 관심은 없고 아주 간단한 단어의 개념도 서있지 않은 아이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다. 눈높이를 맞추려고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해 보았지만 단어들조차 아이들이 쓰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수업에 끌어들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들추어 보았지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수업을 거듭하면서 느끼고 보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하며 준비 한다면 보다 더 원활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이에 도덕과 수업에 한하여 그 특징과 좋은 수업의 조건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준비에 대해 정리하려 한다.

## II. 도덕과 수업의 특징

요즘도 '도덕정도야 아무나 가르쳐도 되지 뭘...'하는 선생님들이 몇 계신다. 하지만 실제 도덕을 가르쳐 본 분이라면 혀를 내두른다. 5분이면 끝나는 내용을 어떻게 45분 동안 가르

\* 서귀포중학교 교사

칠 지 난감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도덕 수업의 과제는 뻔한 결론의 주제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실천의지를 키워주고 내면화 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이기주의로 까지 흐르는 요즘에 와서는 사회적으로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에게나 아이들에게는 별 관심도 없는 과목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 1. 도덕 교사가 생각하는 도덕교과

- 가. 자신을 이해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나.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다. 도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 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운다.
- 마.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며 가치의 내면화에 도움을 준다.
- 바. 인성교육을 포함하며 인격형성에 기여한다.
- 사.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 아. 창의력과 사고력, 논리력 등 향상에 도움을 준다.

### 2. 아이들이 느끼는 도덕교과

- 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과이다.
- 나. 단어가 어렵다.
- 다. 재미가 없고 따분하다.
- 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 마. 바른 생활만 해야 한다.
- 바. 뻔히 아는 이야기이다.
- 사. 고입 문제에 12문항만 출제된다.
- 아. 내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과목이다.

## Ⅲ. 도덕교과에서의 좋은 수업

좋은 수업은 즐겁고 유용하며 아이들을 기다리게 만든다.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어야 할 것이다. 학생이 없는 수업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오늘날 어찌면 우리는 학생들의 껍데기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 수업은 어떤 수업이라야 할까?

## 1. 느낌이 있는 수업

요즘 학생들을 보면 사람과 대하기보다는 컴퓨터와 같은 기계와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감수성이 있고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위해 느낌이 있는 수업은 매우 중요하다.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즐거움을,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슬픔을... 등등 주제에 맞추어 느낌이 교류되는 수업은 정의적 영역을 다루는 도덕과의 중요한 요소이다.

## 2. 준비된 수업

수업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모두의 준비가 있는 수업이어야 한다. 특히 교사는 바쁜 학생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단원에 맞는 예화, 만화, 도서, 그림, 노래, ICT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사 자신의 확신이다. 아이들은 교사가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가치가 뚜렷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느낌으로 알고 있다. 교사의 애매한 행동과 가치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 3.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교사가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업을 이끌기 위해 홀로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수업은 의도하는 대로 되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교사 혼자 달려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주도적인 수업이면서 의도한 수업을 이끌 수 있는 교사의 발문과 분위기 조성, 상황설정 등이 필요하다.

## 4. 학생들의 끼와 창의력, 능력 등을 발산할 수 있는 수업

‘학생들을 파악하고 싶으면 도덕과 선생님에게 답을 얻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만큼 도덕 시간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특성이 드러난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방법을 모색하고 수업을 통해 작은 발표회를 가질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 5. 균형 잡힌 수업

간혹 수업을 하다보면 일부 몇몇 학생들에 의해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 전체를 모두 원하는 만큼 이끌 수는 없지만 교사의 눈은 항상 교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전체 학생들과 눈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지, 관심 밖의 아이를 중심으로 끌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있는 수업이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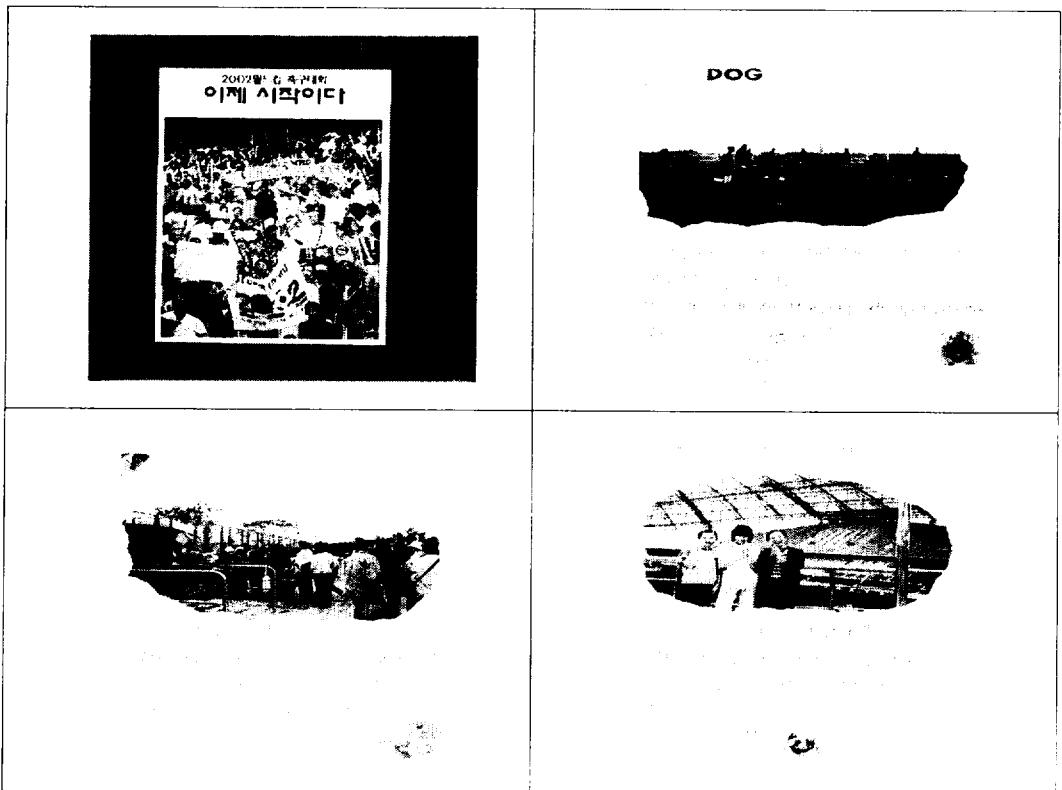
## 6.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수업

주어진 수업 시간에 해야 할 것을 좇다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수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내면을 보다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면화를 위한 깊이 있는 수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드러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

## IV. 함께 하는 도덕 수업 하나 - 사진으로 이야기 꾸미기

어린 시절부터 친숙한 대상인 사진은 많은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런 점에서 사진은 수업 재료로 쓰기에 충분하였다. 더 많은 상상력을 갖게 하고 창의력까지 높이는 기회를 주었다.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1. 계획 세우기 : 수업 개요 설명, 모듈 구성, 주제 선정, 이야기 줄거리 작성, 연출 장면 계획, 역할 분담 등
2. 실행 : 계획한 사진 촬영, 현상, 이야기 전개 및 사진 붙이기
3. 발표 및 평가 : 모듈별 발표 및 상호 평가
4. 발표 사례





## V. 예비교사로서의 준비

### 1. 교육과정의 이해

발령을 받고 일선 학교에 갔을 때, 상황에 따라 수업 학년을 맡게 된다. 교사로서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에 여러 업무까지 맡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교과연구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이다. 따라서 대학 시절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교과 전체적 흐름과 함께 전체학년에 대한 수업 과정안을 준비해 볼 만 하다. 특히 도덕 교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교과서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평소 교과 연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준비하면 좋겠다.

### 2. 수업 대상자에 대한 이해

요즘은 강산이 6개월이면 변한다고 한다. 그에 따라 학생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 아무리 아이들이 변해도 다 거기서 거기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으나, 수업을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 도농, 남녀, 남녀합반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청소년들과의 만남과 그들만의 세계(언어, 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리라 본다. 수업 중 힘들게 하는 청소년의 돌발 상황에 대한 이해 역시 아이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여긴다. 학과 차원에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라도 '교과 캠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자연스럽게 청소년을 만나고 변화하는 성향을 이해한다면 좋을 듯하다.

### 3. 다양한 수업 방법의 모색

수업 모형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수업모형을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 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수업 장학
- 나. 선생님들의 홈페이지 방문 내용확인 및 게시판 상담
- 다. 일선 선생님들의 수업 발표대회 또는 수업 공개 시 참관
- 라.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 자료 만들기

### 4. 다양한 소질과 적성 살리기

도덕교과는 타 교과에 비해 노래, 연극, 만화, 동화 구연 등 교사 개인의 소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 시절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의 10분 훈화보다도 한 컷의 만화에서 더 많은 감동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여러 방면에서의 자기 계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VI. 마치면서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어떤 이는 너무 편한 일이라고 말한다. 주어진 일만 한다면 어찌면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기 이전에 인간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교사는 교직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 때문에 즐겁고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행복해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임용고시를 통과해야만 하는 시점에서 교사를 준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사범대에 진학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 교권이 아무리 추락하였다고 하나 사랑과 정열을 가지고 학생을 대하는 교사는 아름답고 그런 이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희망적이라 믿는다. 미래의 선생님들 모두 아름다운 이들이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